

서호인의 '소설처럼'



지극히 한국적인 리얼리티의 자랑스러움

-박상영, '대도시의 사랑법'

박상영 작가의 연작소설 '대도시의 사랑법'은 모국어로 된 소설 읽기의 재미가 얼마나 충만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작품이다. 자연스러운 구어체와 정갈한 문어체가 혼용됐는데, 비문이 없는 단정한 구조 안에 자리 잡은 2019년 한국의 비속어나 유행어, 한국적 니앙스를 알아야 비로소 웃거나 울거나 판단내릴 수 있는 유머 같은 것. 이는 아무리 대단한 소설이라도 해외에서 들여온 것들에는 내장되어 있지 않다. 박상영은 이런 것들을 다 부릴 줄 안다. 대한민국에서 한국어를 쓰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지만, 이런 소설을 읽는 순간만큼은 한국 사람인 게 다행인 것이다. 작가와 같은 모국어를 쓰게 된 운명에 감사해 하면서.

자신의 몸통이들 앞에 놓고 펼쳐지는 의사의 무감각한 잔소리와 참견을 견디지 못하고 책상에 놓여 있던 자궁 모형을 들고 자리를 뜬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언니 또래인 간호사다. 간호사는 수술도 해 주고 태도도 좋은 병원을 소개한다. 자신도 거기에 다닌다면서. 임신중절 수술을 둘러싼 여성의 선택권과 연대에 대한 유머와 통찰은 같은 세대를 압박하는 현실의 문제를 예민하지 않되, 심각하지도 않게 지속된다. 이 힘이 남은 페이지를 단번에 읽게 만든다.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에서 주인공 '나'는 암으로 투병 중인 엄마를 간병할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다. 나는 엄마에게 있어 이해와 인정의 범주에 들지 못한 다. 엄마로부터 억압과 폭력을 겪었으나 엄마는 그것이 폭력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엄마를 증오하고 거부하는 것 같지만 또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 처럼 보인다. 이해와 용서로 이루어진 쉬운 결말을 포기한 채 소설은 거듭 묻는다. 정상성은 무엇인지, 진짜 병든 자는 누구인지. 주인공은 간병으로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한때 운동권이었고 지금은 편집자로 일하는 남자를 만나 사랑을 나눈다. 둘의 사랑은 애뜻한 동시에 어색한 기운이 있는데, 이는 남자가 주인공을 교정과 계몽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소설은 그렇다고 하여 '있'은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텅 빈 메시지를 발송할 정도로 설부르진 않다. 그러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우리가 놓여 있음을 이 소설은 알고 있고, 그리하여 내비치는 이 쫓기고 광활한 태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도시의 사랑법'과 '늦은 우기의 바깥스'는 내가 가장 진지하고, 가장 오래 사랑한 연인 '규호'를 중심으로 규호가 나의 인생에 미래에서부터 시작해 현재가 되었다가, 이제는 과거가 되어 버린 흐름 위에서 이야기의 노를 짓는다.

박상영의 이야기는 카약처럼 뒤집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벽에 부딪혀 흔들렸다가도 다시 제 방향을 찾는다. 때때로 정돈된 플랫폼에 의해 끌려가는 소설이라기보다는 이리저리 맞고

구르는 인생 자체로 보이는데, 실제로 연작소설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네 편의 소설은 일견 자전적 소설의 면모가 있다. 그렇다고 '대도시의 사랑법'이 소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되레 나를 드러내고 조각하여 다시 편집함으로써 근래에 보기 드문 편집성을 확보하는 데 완벽히 성공했다. 이 소설은 그러니까 온갖 한국적 상황에 놓인 리얼리티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인이거나 이 소설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으나, 한국어를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한국인임은 어떤 짙짐함을 남긴다. 소설의 주인공 '나'는 남자이다. 숨길 것도 없이 그는 성소수자이고 그의 소수성이 소설을 끌고 가는 주요한 동력이기도 하다. '대도시의 사랑법'은 쿼어함을 전면에 내세운 소설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오늘도 그 대도시 곳곳에서는 소수자를 향한 혐오의 언어와 폭력이 난무한다. 소설 속 인물들도, 작자 '나'도 한국 사람인 것을 다들 알고는 있긴? 글세, 그건, 당신이 더 잘 알 듯 하지만...

의료칼럼

조금만 걸어도 무겁고 피곤한 다리



김지용 청원한방병원장

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약화된 정맥 벽과 판막의 지속적인 기능 부전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래 서 있는 자세 등의 이유로 정맥의 압력이 높아지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역류하거나 심부 정맥이 폐쇄돼 순환 장애가 생기게 된다. 이 때문에 하지의 표재 정맥이 점차 확장돼 정맥류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 정맥류를 발생시키는 위험 요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 여성 호르몬의 영향, 직업적인 영향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부모가 정맥류가 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자녀에게서 정맥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에서 정맥류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임신, 생리 전, 폐경기의 호르몬의 변화가 원인으로 여성 호르몬이 정맥을 확장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호르몬 대체 요법 또는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면 정맥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 정맥류는 미용상의 문제와 함께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 정맥류가 있으면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나 고 쉽게 피곤해지는 것 같으며 때로는 통증, 육신기림, 경련, 부종 등을 경험하기

도 한다. 초기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맥 순환의 이상이 서서히 나타나 환자가 이를 증상으로 자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 정맥류는 대개의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정맥류의 직경이 커지고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또 일부에서는 정맥류성 피부염이 발생하고 피부 궤양 등이 유발될 수 있고 약한 자극에도 많은 출혈을 일으키거나 혈전 발생으로 혈전성 정맥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심하지 않은 하지 정맥류는 장기 입원이나 복잡한 치료 과정을 요하지는 않는다.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은 자세를 피하고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있으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 대표적인 보존적 치료는 정맥류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다. 압박 스타킹은 종아리에 강한 압력을 주고 위로 올라갈수록 단계적으로 압력이 낮아져서 혈액이 원활하게 심장 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한 다리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규칙적인 운동은 종아리 근육의 수축 및 이완을 도와 혈액 순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증상이 심해지거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문 의료진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다.

하지 정맥류는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증상 호전 및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한약, 침, 약침 치료를 활용해서 하지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정맥 혈관 주변에 손상과 함께 발생한 염증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

최근 한의 연구에서는 불쾌감, 저린 증상, 차가움, 통증, 가려운 증상을 호소하는 하지 정맥류 환자에게 있어서 주관적인 증상의 개선뿐만 아니라 하지 정맥류의 중증도, 피부관류양, 어혈(瘀血) 지수 검사에서도 유효성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정맥류는 자연 치유가 어려워 증상이 나타난다면 경화제 주입 요법과 같은 약물 요법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여지가 존재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어려울 수 있다. 다리의 무게감이나 피로감이 있다면 가까운 한의 의료 기관에 내원해 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한의 치료를 통해 본질적으로 증상을 개선시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다.

기고

독서가 개인의 경쟁력이다



남진수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만이 안정된 생활 속에서 자아실현을 하는 반면 80%는 불안정한 고용이나 실업 상태에서 비참하게 생활한다.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은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는 저서에서 렉서스의 최첨단 자동차 생산 라인을 세계화로, 올리브 나무를 가족, 지역 사회, 민족, 종교 등의 전통 가치로 비유하면서 비록 엄청난 저항이 있지만 세계화와 시장 경제를 물리칠 수 없는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간주했다.

프리드먼은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저서에서 세계화 시대는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출신지와 관계없이 창의와 열정을 가진 개인이 성공할 수 있는 개인 경쟁력의 시대라고 선언했다. IT 기술 혁신에 따른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이 세계와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졌고 그 근거다. 과거의 세계화는 국가와 글로벌 기업이 주도했으나 오늘날의 세계화는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각종 소프트웨어로 무장한 개인이 주도한다.

이런 지식 기반 사회는 다름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얻는다. 지식 기반 사회가 도래하면서 지식의 원천 소

스로서 상상력과 창의력의 근원이 되는 독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나폴레옹, 링컨 등 시대의 아이콘이 된 위인의 배경에는 독서의 힘, 지식의 힘이 컸다. 나폴레옹은 전쟁터에서도 마차에 책을 잔뜩 실은 '진중 도서관'을 운영했다. 링컨은 학교 앞에 가본 적도 없지만 당시 귀했던 책을 외울 때까지 큰소리로 낭독하는 특유의 독서방법을 통해 연설과 토론 등 정치인의 자질을 쌓아 갔다. 미국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암기한다는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문은 그래서 가능했다.

책에서 유래된 유명 브랜드도 많다. 롯데는 독일의 문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샤를 롯데의 이름에서 나왔다. 스타벅스는 미국작가 허먼 멜빌의 '모비딕'에 나오는 스타벅이라는 열정적인 성격에 다정다감하면서 커피를 매우 좋아하는 항해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이 대중화 되면서 독서 인구가 급감 추세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의하면 1년에 한 권 이상 책을 읽는 사람의 비율인 독서율은 작년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보 습득을

社說

'한옥 마을' 취지 좋지만 성과도 따져 봐야

농어촌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한옥 마을 조성 사업이 겹칠고 있다. 15년간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인구 유입과 소득 창출 효과는 미미하기만 하다.

전남도는 지난 2005년 12월 한옥 지원 조례를 제정된 이후 전통 한옥을 50㎡ 이상 규모로 10층 이상 연계해 조성하는 마을에 가구당 3000만 원의 보조금을 포함해 최대 2억 원의 용자금 지원을 왔다. 지금까지 기존 마을 정비나 신규 단지 조성 등을 통해 도내에 조성된 한옥 마을은 모두 107곳이다.

이들 마을을 만드는 데 들어간 예산은 도비·시군비 등 1024억 원에 이른다. 개별 한옥에 대한 보조금 291억 원, 용자 432억 원, 공공 기반시설 지원 301억 원 등이다. 더욱이 전남도는 최근 한옥 사업의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용자금을 크게 확대해 지원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제1회 '섬의 날' 섬의 가치 재조명 기회로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초 '2019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을 발표했다. 전남 지역에서는 신안의 임자도·중도·우이도, 완도의 청산도·금당도 등 14개 섬이 선정됐다.

이들 섬은 '걷기 좋은 섬', '풍경 좋은 섬', '이야기 섬', '신비의 섬', '체험의 섬' 등 5개 카테고리로 구분됐다. 세계에서 가장 긴 공룡 발자국 보행열이 퇴적암 층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여수 사도는 '신비의 섬'으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슬로 시티'로 지정된 완도 청산도는 '걷기 좋은 섬'으로, 진도 관매도와 완도 생일도 및 고흥 애도는 '풍경 좋은 섬'으로 각각 뽑혔다.

섬은 제각기 다른 풍광을 품고 있다. 따라서 '휴양'을 위한 좋은 여행지이자 '힐링'을 위한 훌륭한 관광지이기도 하다. 지난 4월 천사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관광이 활성화된 신안 암태면의 네 개 섬(자은도, 암태도, 팔금도, 안좌도)이 그 좋은 예다. 쇠락하던 일본 나오시마(直

島) 섬 역시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의 섬'으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섬은 마냥 아름다운 대상만은 아니다. 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열악한 시설로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게다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향후 50년 내 60여 개 이상의 섬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은 '제1회 섬의 날'이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는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해 매년 8월 8일을 국가기념일인 '섬의 날'로 제정했다. 첫 행사로 8~10일 사흘간 목포 삼학도에서 '대한민국 섬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섬 민속경연 대회와 학술대회, 세프 푸드쇼 등 섬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하는 축제 형식으로 치러진다. 이번 '섬의 날' 행사가 보석 같은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가운데 섬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無等鼓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영토 분쟁이 발생한 지역은 대략 60~70곳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인도의 국경 분쟁과 인도-파키스탄의 카슈미르를 제외하면 대부분 섬과 관련돼 있다. 영국·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중국·베트남·필리핀의 난사 군도, 중국·일본의 조어도(센카쿠), 러시아·일본의 쿠릴 열도 등이 대표적이다.

섬이 뒤늦게 분쟁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동안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관심이 덜했기 때문이다. 관리·운영하는 데 비용이 더 들고 영토로서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조선시대에는 섬을 아예 비워두는 공도(空島)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19세기 말 열강들이 한반도를 먹잇감으로 해 정투를 벌일 당시 가장 먼저 불법 점거를 당한 것도 섬이었다.

거문도는 러시아의 조선 진출에 대해 견제에 나선 영국에 의해 1885년 3월 1일부터 1887년 2월 5일까지 불법으로 점령당했다. 영국은 이미 1845년 거문도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해양 거점인 거문도를 차지해 중국·일본 무역을 보호하고 러시아를 대비해야 한다는 내부 검토를 마

쳤다. 영국이 거문도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홍콩과 상해를 잇는 각각 1800km, 600km에 이르는 통신선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거문도의 해양 거점 기능을 한층 향상시킨 것이다.

일본이 패망하자 1951년 전후 처리를 논의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섬이 이슈가 됐다. 일본은 거문도를 할양해 줄 것을, 우리나라는 독도·파랑도는 물론 대마도까지 일본의 권리·자적·영유권 포기를 각각 미국에 바랐다고 한다.

전남은 섬의 보고(寶庫)다. 전국적 유인도 470개 중 276개, 무인도 2869개 중 1889개가 이곳에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섬은 소외·고립·불편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섬 주민의 편의 증진과 교통 불편 해소 등의 소극적인 접근법이 주류를 이뤘다.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목포 삼학도 일원에서 제1회 섬의 날 주간 행사가 열린다. 8월 8일로 높이면 무한대(∞)가 되는데, 섬이 무한의 가치를 지녔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이처럼 날짜도 특별히 정했다고 한다. 섬을 세계로 향하는 우리의 디딤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현성 정치부 부장 chadol@

무한의 가치, 섬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 | | |
|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1(일간) | | 우편번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체 육 부 220-0633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